

晉州上村里遺蹟出土 新石器時代 甕棺

沈 奉 謹

Shim, Bongkeun
東亞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教授
東아시아文物研究所 所長

1. 머리말

晉州上村里遺蹟은 慶南 晉州市 大坪面 上村里 534-3番地에 位置한다. 甕棺은 南江댐水沒地區 調査地域 가운데 東亞大學校 博物館에서 實施한 곳에서 出土되었다. 이 遺蹟은 南江流域의 砂質性 沖積臺地 위에 形成된 聚落址이며 新石器時代와 靑銅器時代의 竪穴住居址, 貯藏穴, 環壕 등 各種 生活遺構와 土器, 石器 등의 遺物이 集中해서 出土되어 당시의 文化樣相을 糾明하는데 있어서 重要的 資料가 되고 있다.

특히 여기에 紹介하는 第14號 竪穴住居址에서¹⁾ 出土된 甕棺은 新石器時代 中期로 編年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發見된 甕棺 가운데서 最古의 것이다. 그리고 甕棺 內部에는 火葬된 成人의 人骨이 埋納되어 있었다. 또 甕棺이 位置하는 곳이 住居址 內部라는데서 日本에서 간혹 紹介되고 있는 住居址 內部에서 出土되는 埋甕土器와 같은 性質의 것이라는 데 더욱 注目되고 있다. 따라서 이 甕棺은 우리나라는 물론 中國, 日本 등 東北아시아 地域의 先史時代 墓制나 社會研究에 있어서 貴중한 資料가 될 것이 분명하여 우선 그 大略을 여기에 紹介하는 것이다. 물론 遺蹟의 全般的인 規模나 性格에 대해서는 앞으로 發刊될 調査報告書에서 詳述될 豫定이다.

2. 甕棺 出土 遺構概要

甕棺이 出土된 第14號 住居址는 東亞大學校에서 調査한 上村里遺蹟의 遺構 分布上 北東쪽 가장자리에 位置하고 있었다. 이 住居址 南쪽에도 같은 時期

1) 여기서 중기라고 하는 것은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빗살무늬토기 사용시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략 B.C.4000-B.C.3000년 사이를 의미한다.

에 築造된 竪穴住居址가 分布하고 周邊 一帶에는 보다 늦은 時期에 築造된 것으로 推定되는 環壕, 積石遺構, 貯藏穴 등이 있었다. 遺蹟이 位置한 臺地는 南江 流域에 形成된 砂質性 沖積臺地로서 住居址 築造 當時는 周邊이 砂丘였고 聚落 은 砂丘의 南斜面에 자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現在는 이들 沖積臺地 大部分 이 논이나 밭과 같은 耕作地로 開墾되어 平平한 臺地로 變했고 南江 本流도 近 接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이 住居址는 이미 發掘始作 段階의 探 索調査에서 試掘坑에 의해 南-北 長軸의 床面 中間部分이 地表아래 2m 깊이에 서 確認되었다. 第1號 甕棺은 試掘過程에서 收拾되었고 第2號 甕棺은 그 뒤 住 居址의 本格的인 調査過程에서 發見되었다. 이 住居址 調査를 위해 床面 위 2m 높이의 砂質性 堆積層을 모두 除去하였는데 그 過程에서 確認된 堆積層은 우렁 이나 당근, 산마 등과 같은 球根菜蔬를 耕作하면서 굴삭기로 住居址 床面 근처 까지 攪亂시켜 버렸으므로 堆積層의 形成過程이나 遺構의 殘存與否는 確認하기 어려웠다. 이 住居址도 床面 위의 堆積層이 大部分 攪亂되고 어깨선 一部分 겨 우 殘存하고 있는 정도였으나 그런대로 平面의 形態와 床面に 깔린 遺物은 收 拾이 可能하였다. 즉 모래층에 나타난 住居址의 平面은 長方形이고 長軸은 南- 北이지만 北東-南西로 약간 기울어진 形態였다. 試掘坑이 住居址의 長軸을 따 라 中間에 設置되면서 床面을 一部 毀損시켰으나 中央에서 爐址로 推定되는 둥 근 燒土層과 그 左右 長壁에서 약 90cm의 間隔을 두고 配置된 柱穴이 있었으 며 柱穴周邊에는 各種 遺物이 散布되어 있었다. 여기에 紹介하는 甕棺은 北東쪽 短壁과 그 옆 동쪽 長壁 어깨선 内部에 近接하게 나란히 配置되어 있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住居址 中央에 位置하는 爐址는 周圍나 床面に 어떤 施設을 갖춘 것 이 아니고 그저 住居址 床面을 오목하게 파서 불을 피운 形態인데 長期間 使用 되면서 燒土層이 복록하고 堅固하게 堆積되었으며 直徑 140cm, 깊이 26cm정 도 크기였다. 이곳 新石器時代 住居址의 爐址는 이런 形態의 것이 大部分이다.

다음 柱穴이다. 長壁을 따라 兩側으로 設置된 立柱穴이 一定한 間隔을 維持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各 長壁과 나란하게 直線狀을 이루고, 크기는 大小에 약간씩 差異가 있었다. 그러나 床面이 모래층이어서 大小의 差異를 區別해서 意 味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實情이었고 맞배 形態의 지붕은 架設이 可能하다고 判 斷되었다.

다음 遺物이다. 床面 全體에 걸쳐 無秩序하게 土器片과 石器片이 널여있었 다. 住居址 廢棄時에는 完形의 것이 大部分이었다고 생각되지만 뒷날 堆積層 形

성과 耕作過程에서 많이 毀損되어 調査當時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생각된다. 土器는 甕棺과 같이 新石器時代 中期에 該當하는 全面施文의 빗살무늬 土器가 大部分이고 간혹 丹塗磨研土器片도 섞여있었다. 石器는 局部磨研의 보습과 도끼, 打製石槍 등이며 比較的 完形에 가까운 것이 많이 남아있었다. 이들 遺物은 大部分 柱穴 周邊에 集中하는 傾向이었고 東壁 가까이에는 作業臺로 使用된 自然大石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다. 第1號 甕棺은 북동쪽 短壁下에 반듯하게 세워진채 發見되었으며 周邊에 甕棺 土部에 덮었던 뚜껑용의 土器片과 石斧 1점이 놓여 있었다. 第2號 甕棺은 前記한 第1號에 隣接해서 동쪽 長壁 始作部位에 역시 반듯하게 세워진 것이 發見되었으나 土體部가 大部分 破壞된 狀態였다. 周邊에서 윗쪽에 덮었던 土器片과 副葬한 것으로 推定되는 石槍 2점이 함께 發見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住居址는 어깨선부분이 어느정도 毀損된 狀態로서 甕棺은 床面을 파고 安置하였으나 口緣部가 床面보다는 약간 높게 安置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住居址의 어깨선부분이 一定 幅으로 階段狀을 이루었다면 甕棺은 階段狀 部位에 位置하였으므로 露出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住居址를 비롯한 大部分의 이곳 住居址들이 어깨선부분에 一定 幅의 階段狀을 가진 것으로 推定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甕棺은 床面보다 약간 높게 階段狀을 이룬 어깨선부분에 露出되지 않고 埋納되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住居址의 크기는 가로 824cm 세로 564cm 깊이 20cm이다.

3. 甕棺의 特徵

여기에서 出土된 甕棺은 모두 尖底를 가진 深鉢形인데 第1號는 胴部 中位가 짝 벌어진 南部地方의 突山松島나 影島瀛仙洞遺蹟⁵⁾ 등 우리나라 南部地方 新石器時代 隆起土器에서 沈線土器 段階에 이르기까지 자주 出土되는 器形이며 第2號는 典型的인 빗살무늬토기 形態를 가진 것으로서 漢江流域의 漢沙里⁶⁾, 岩沙洞遺蹟⁷⁾과 北韓의 智塔里⁸⁾, 弓山里遺蹟⁹⁾ 등 西部地方 遺蹟에서 자주 出土되는 器形이다.

2) 國立光州博物館, 『突山松島』, 學術叢書21, 1990.

3) 金東鎭, 『瀛仙洞貝塚의 再檢討』, 『釜山史學』 8, 1984.

李東柱, 『韓國先史時代 南海岸有土器研究』, 文學博士學位請求論文, 1996.

4) 漢沙里發掘調査團, 『漢沙里』, 1994.

5) 國立中央博物館, 『岩沙洞』, 古蹟調査報告26, 1995.

6) 고고민속학연구소, 『지탑리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8, 과학원출판사, 1961.

7) 고고민속학연구소, 『공산원시유적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2, 과학원출판사, 1957.

그 중 第1號는 完形에 가깝도록 保存狀態가 良好하다. 器形은 直立하는 口緣部에 口脣은 水平하고 胴部 中位에서 갑자기 꺾어져서 尖底에 이르는 形態이다. 成形은 比較的 幅이 넓은 粘土帶로 卷上하고 器面을 調整한 뒤 口緣部에만 文樣을 配置하고 있다. 또 表面 中間에는 貝殼條痕文이 남아있다. 文樣은 口緣外壁에 굵은 沈線의 三角集線文을 上下 어긋나게 一段만 配置하고 底部에는 外側에서 두드러 깨어낸 것으로 推定되는 둥근 구멍이 있다. 調査時에는 上器片으로 구멍을 메웠다. 胎土에는 굵은 砂粒과 長石, 石英, 角閃石이 含有되고 金雲母가 多量 包含되어 있다. 燒成度는 良好하며 外壁 文樣帶부분에 黑斑처럼 燒成時 생긴 검은 斑點이 있다. 높이 34.5cm 구경 39.7cm이다. 이 甕棺 內部에서 火葬한 成人의 人骨片이 採集되었다.

다음 第2號는 大部分 破損된 狀態로 確認되었으나 復原하여 器形을 알 수 있었다. 外反하게 傾斜진 直立 口緣部를 가지고 胴體는 약간 둥글면서 底部까지 直線狀을 띠어 尖底部에 이르는 典型的인 우리나라 빗살무늬토기 形態를 取하고 있다. 成形은 幅이 넓은 粘土帶로 卷上하였고 粘土帶 끝이 內面에 이르도록 쌓아올리는 手法이다. 文樣은 口緣部에서 肩部에 이르는 外壁에 9段의 押引된 短斜集線文을 配置하고 있는데 3段에만 縱走魚骨文 形態의 다른 文樣을 施文하고 있다. 그리고 胴部 中間은 施文하지 않고 空白으로 남기고 底部에는 다시 굵은 沈線의 橫走魚骨集線文을 施文하고 있다. 短斜集線文 사이에 縱走魚骨文 配置나 胴部 中間에 空白을 남기는 形態는 이곳 土器의 特徵이라고 말할 수 있다. 胎土에는 多量의 細砂粒, 石英과 少量의 長石, 金雲母, 角閃石섞여 있고 燒成度는 良好하며 器面 內外에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있다. 높이 47.5cm 구경 42cm정도 크기이고 內部에서 역시 火葬된 人骨片이 檢出되었다.

그밖에 第1號 甕棺 外側에서는 뚜껑으로 使用된 土器片이라고 생각되는 短斜集線文의 口緣部 土器片과 副葬品으로 推定되는 精板岩製의 打製石斧가 出土되었다. 그리고 第2號 甕棺에서도 역시 뚜껑으로 使用된 短斜集線文과 雷文의 土器 口緣部片과 素文의 底部片, 그리고 副葬品으로 생각되는 精板岩製의 打製石槍이 出土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淸州上村里遺蹟에서 甕棺이 出土된 遺構와 甕棺의 特徵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前記한바와같이 이 甕棺의 發見은 우리나라 新石器時代 墓制나 社會相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몇가지 示唆하는 바가 있다.

먼저 甕棺 白體에 대한 意味이다. 우리나라 甕棺墓의 始作이 지금까지 金海貝塚⁸⁾이나 金海池內洞⁹⁾, 光州新昌洞遺蹟¹⁰⁾ 등에서와같이 靑銅器時代 以前으로 推定되는 遺蹟은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新石器時代 中期로 編年될 수 있는 實物이 이번에 確認된 것이어서 우리나라 先史時代 甕棺墓의 始作이 늦어도 新石器時代 中期段階까지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 甕棺 內部에 火葬된 成人의 人骨 埋納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火葬은 三國時代 佛敎가 流入된 이래 流行한 葬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新石器時代에 이미 火葬하는 2次葬制度가 存在하였다는 것이 確認된 셈이다. 최근 南部地方 三韓時代 木槨墓 가운데 燒失된 痕跡을 남기고 있는 것이 確認되어 注目하였으나¹¹⁾ 新石器時代까지 遡及될 것으로는 豫想하지 못했다. 이 경우 日本의 繩文後期나 晩期段階의 遺蹟에서 火葬手法이 確認되는 것과 比較될 수 있을 것이다.¹²⁾

다음은 같은 住居址에서 出土된 甕棺으로 使用된 土器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新石器時代 土器 編年上 相互 差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第2號 甕棺은 우리나라 西部地方 流行形式으로서 先行하는 器形이고 第1號는 南部地方 流行形式으로서 前者보다 약간 늦은 段階로 編年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住居址 內部에서 出土되고 있으므로 어느 하나가 傳世品이거나 編年の 誤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地域的인 差異도 排除할 수 없지만 後者에 該當할 可能性이 많다고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이 甕棺이 住居址 內部에서 出土된 점이다. 日本에서는 이런 경우 일찍부터 埋甕이라는 單語를 使用하고 있다. 埋甕이란 土器를 地中에 意圖的으로 埋設한 遺構라고 定義하고, 埋設場所는 屋內, 屋外, 配石(集石)下로 區分하고 있다.¹³⁾ 그리고 埋設狀態는 正位埋設, 逆位埋設, 橫位埋設, 斜位埋設로 區分하며, 土器의 穿孔有無에 따라서 底部에 구멍이 있는 것, 胴部에 구멍이 있는 것, 아예 없는 것 등으로 區分하고 있다.¹⁴⁾ 또 性格에 대해서는 貯藏施設說¹⁵⁾, 甕

8) 柳本杜人, 「金海貝塚의 甕棺과 箱式石棺」, 『考古學雜誌』 43-1, 1957.

9) 沈奉漢, 「金海洞內洞遺蹟」, 『東亞大學校古蹟調查報告』 第5冊, 1981.

10) 金元龍, 「新昌里甕棺墓地」, 『서울大考古人類學叢刊』 第1冊, 1964.

11) 김해양동리, 울산하대유적의 목곽묘에서 내부가 소실된 흔적을 남기고 있다.

12) 橋口達也, 「大形棺成立以前の甕棺の編年」, 『九州歴史資料館研究論集』 第17號, 1992.

13) 戶澤亮則 編, 『繩文時代研究事典』, 東京出版, 1994.

14) 植田文雄, 「擴張, あるいは展開する繩文文化—西日本における埋甕の出現とその變容をめぐって」, 『滋賀考古』 第5號, 1991.

15) 松村瞭他, 「下總敏山ニ於ケル石器時代遺蹟貝塚ト其ノ貝層下發見ノ住居址」, 『東京帝國大學理學部人類學研究報告』, 東京帝國大學, 1932.

呪呪術說¹⁶⁾, 建築儀禮說¹⁷⁾, 土器棺說¹⁸⁾이 있고 內容物에 대해서는 胎盤胎兒埋葬說¹⁹⁾, 幼兒埋葬說²⁰⁾, 一定 內容物을 同伴하지 않는 儀器說 등이 있다. 그리고 埋葬土器는 近畿地方의 北西部 山岳地方에서 始作하여 九州地方으로 傳播된 것으로 把握하고 있으며²¹⁾ 單獨埋葬에서 合口式으로, 正位에서 斜位로, 鉢形에서 壺形으로, 底部 穿孔에서 胴部 穿孔으로, 屋內에서 屋外로 變形 發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定立된 學說이 없는 듯하다.²²⁾

이와같은 日本 埋葬의 特徵을 勘案한다면 이번에 發見된 上村里 甕棺은 屋內, 正位, 底部 穿孔, 鉢形 등 古式으로 생각되는 要素를 內包하고 用途가 甕棺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時期的으로도 先行하는 形式이어서 오히려 埋葬 風習은 우리나라에서 日本 九州地方에 傳播되고 그것이 다시 本州地方으로 傳播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北韓地域에서 過去에 調査報告된 新石器時代遺蹟인 弓山里와 智塔里遺蹟은 매우 注目되고 있다. 報告當時는 豫想하지 못했던 일지만 弓山里 第4號 圓形竅穴住居址 內部の 爐址, 옆에 逆位로 埋設된 土器²³⁾와 智塔里 第2號 方形竅穴住居址 남쪽 床面에 역시 逆位로 埋設된 2점의 土器는 甕棺으로 使用된 埋甕일 可能性이 많다고 생각된다.²⁴⁾ 智塔里的 경우 報告書에서도 火葬된 骨片이 出土되었다고 報告하고 있어서 더욱 信憑性을 더해주고 있다. 弓山里나 智塔里遺蹟 역시 上村里遺蹟과 같이 沈線文土器가 出土되는 遺蹟으로서 時期的로나 文化內容에 있어서도 大差가 없는 것을 勘案한다면 埋葬葬法은 일찍부터 우리나라에서 流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確認된 甕棺은 그 特徵이나 出土地, 使用時期 등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中國, 日本 등 東北아시아地域의 埋葬이나 甕棺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될 것으로 期待된다. 뿐만아니라 新石器時代 中期 社會가 單純한 採集經濟의 原始社會가 아니고 밭 農事와같은 農耕과 祖上神을 崇拜하는 原始宗教活動 등 상당히 發展된 段階의 社會體制를 갖추고 있었던 것을 豫想할 수 있다.

16) 桐原健, 「繩文中期に見られる埋葬の性格について」 『古代文化』 18-3, 1967.

17) 水野正好, 「埋葬祭式の復原」 『信濃』 III 30-4, 1978.

18) 鏡山 猛, 「甕棺考(3)」 『史淵』 第55號, 1954.

賀川光夫, 「繩文時代のカメ棺の出現と彌生文化前段の問題-西日本における繩文終末期の葬制-」 『考古學論叢』 第2號, 1974.

19) 木下忠, 「戸口に胎盤を埋める呪術」 『考古學ジャーナル』 42,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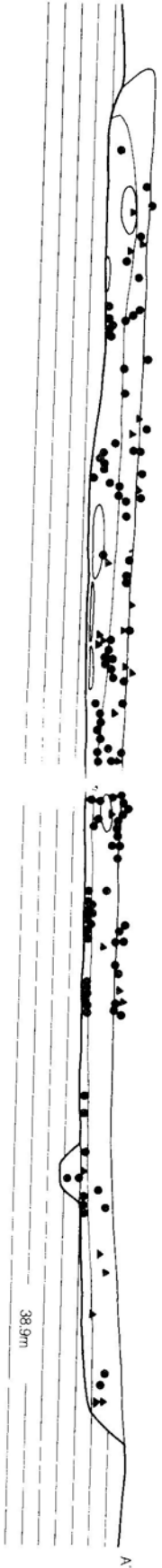
20) 渡邊誠, 「埋葬考」 『信濃』 IV 20-4, 1968, 「埋葬考(續)」 『古代文化』 20-7, 1968, 「繩文時代における埋葬風習」 『考古學ジャーナル』 42, 1970.

21) 坂本嘉弘, 「埋葬から甕棺へ-九州繩文埋葬考-」 『古文化談叢』 32,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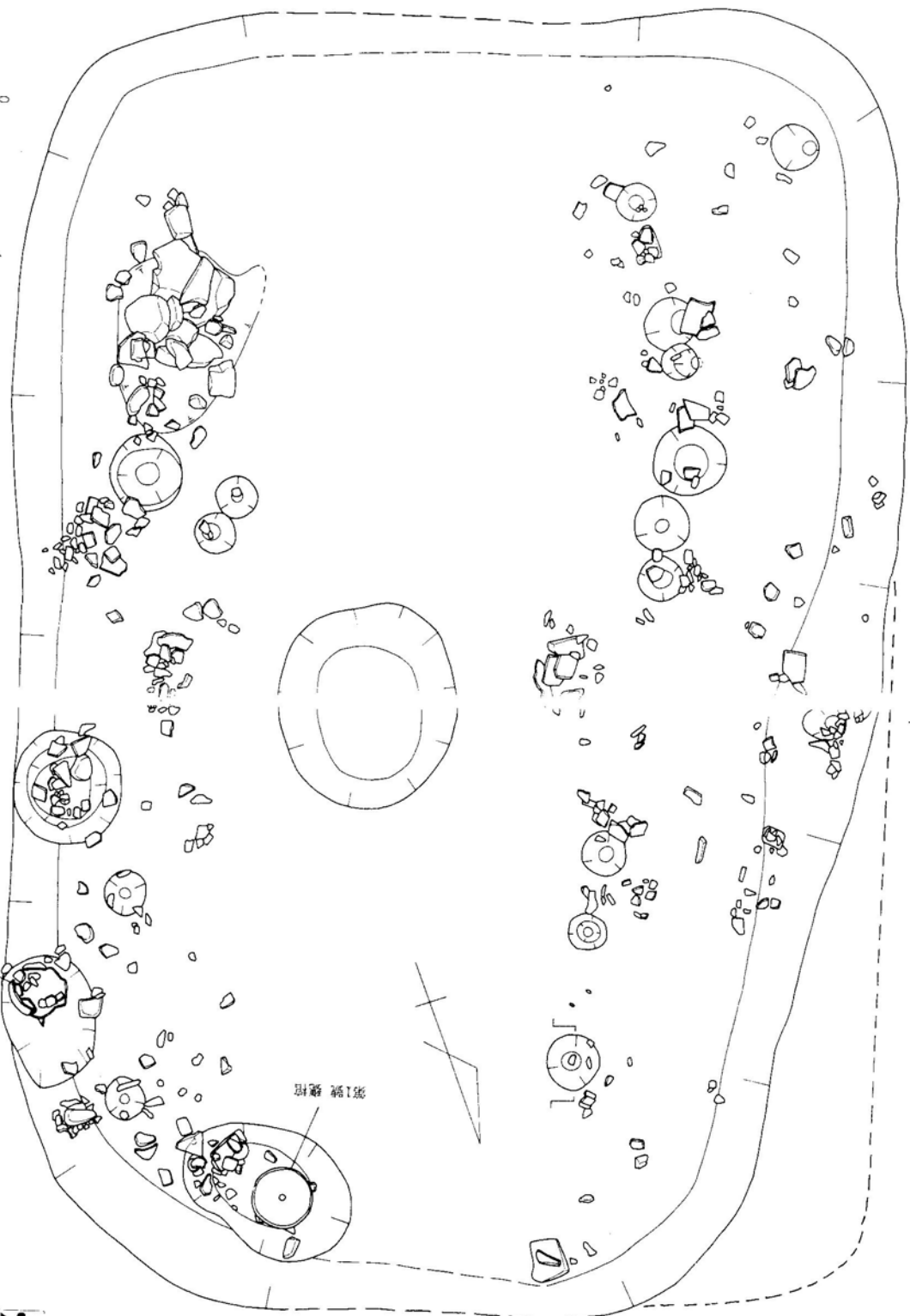
22) 山田康弘, 「九州の埋設土器」 『文學部論叢』 49, 熊本大學文學部, 1995.

23) 도유호·황기덕, 『궁산원서유적 발굴보고』, 1957.

24) 도유호·황기덕, 『지답리유적 발굴 중간보고 I·II』 『문화유산』 5·6, 1957.



38.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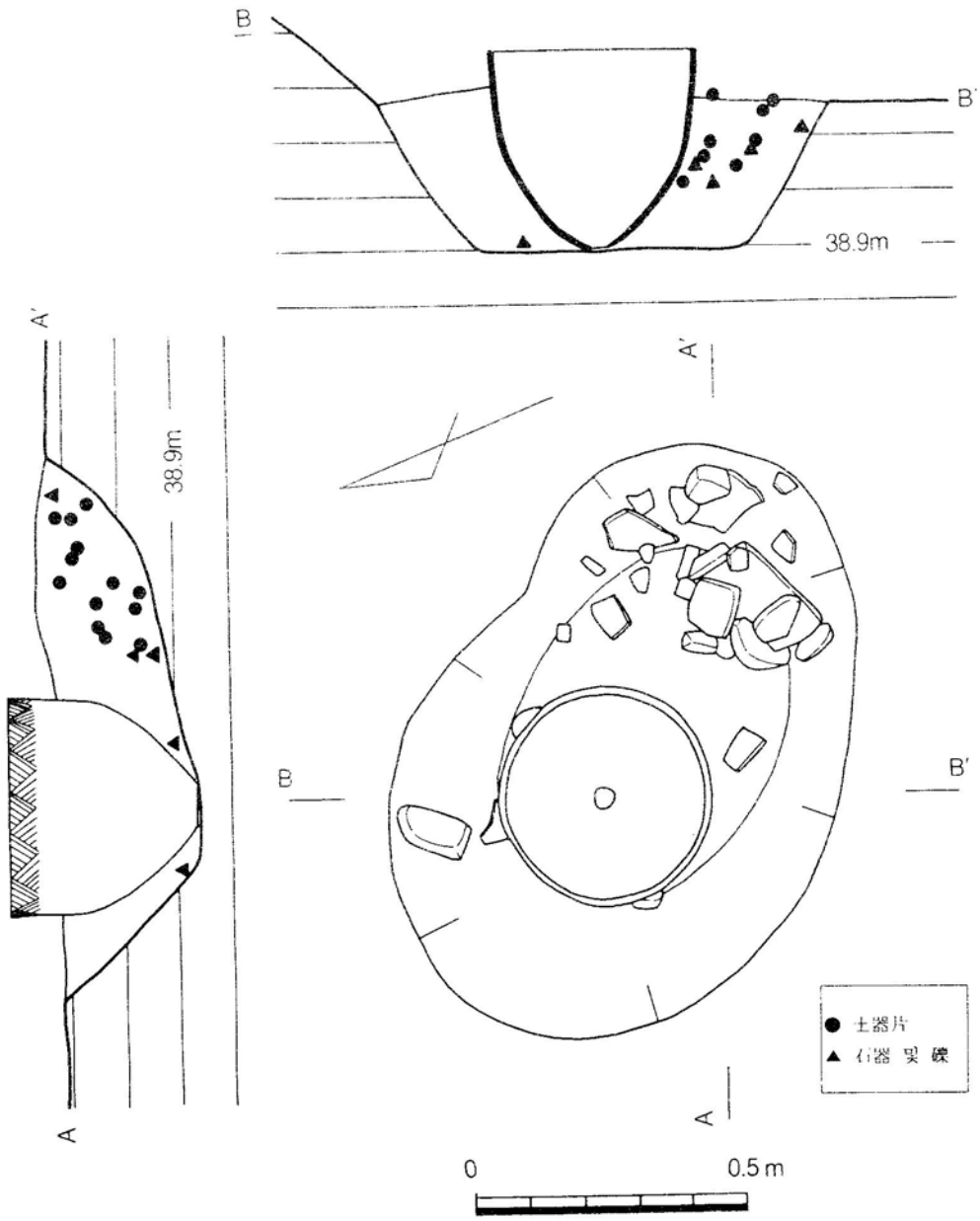
第1號 藥棺

第2號 藥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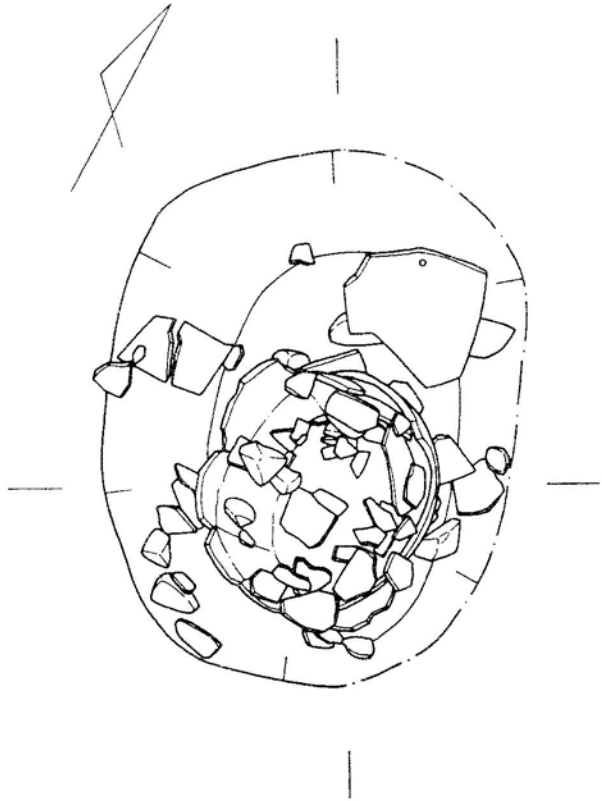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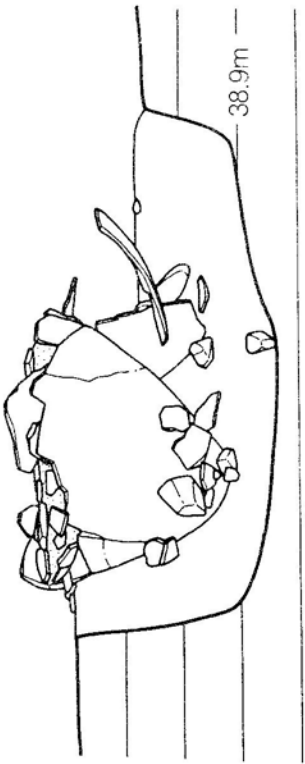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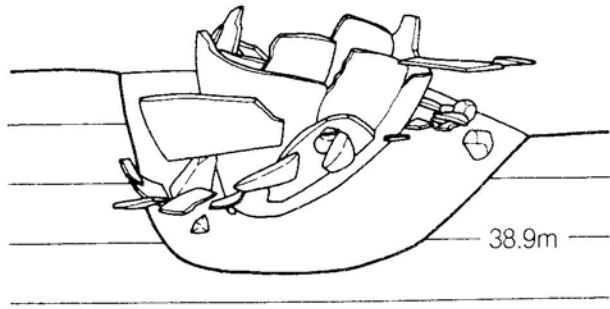
圖面 1. 豐州 上村 寺尾 石器 土器 遺構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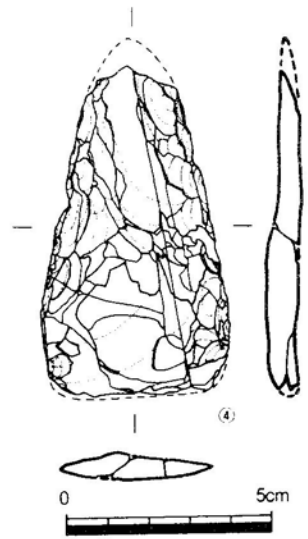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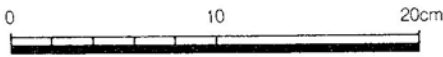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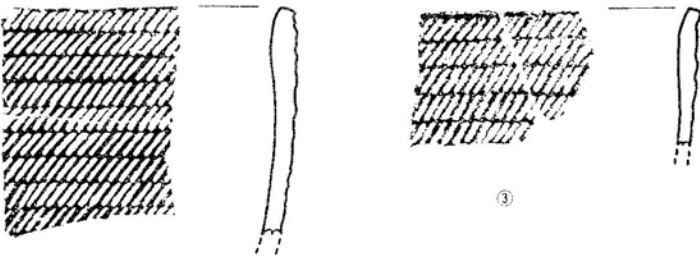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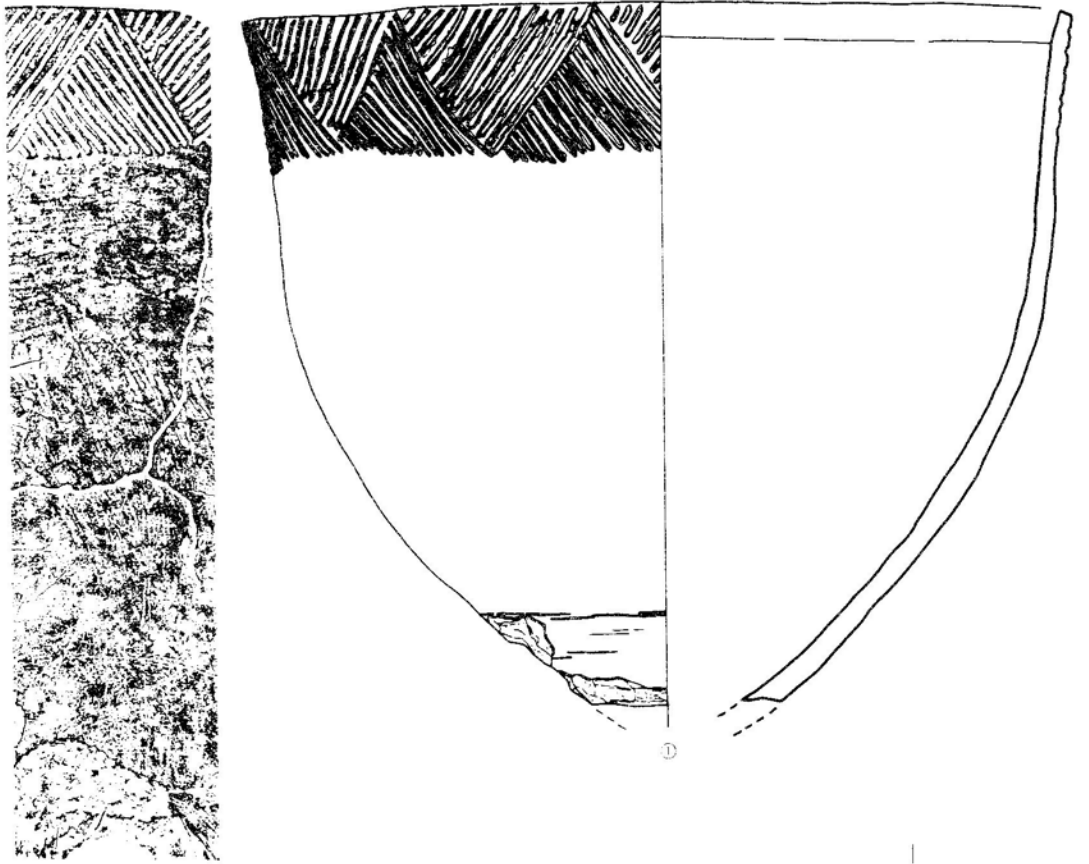
38.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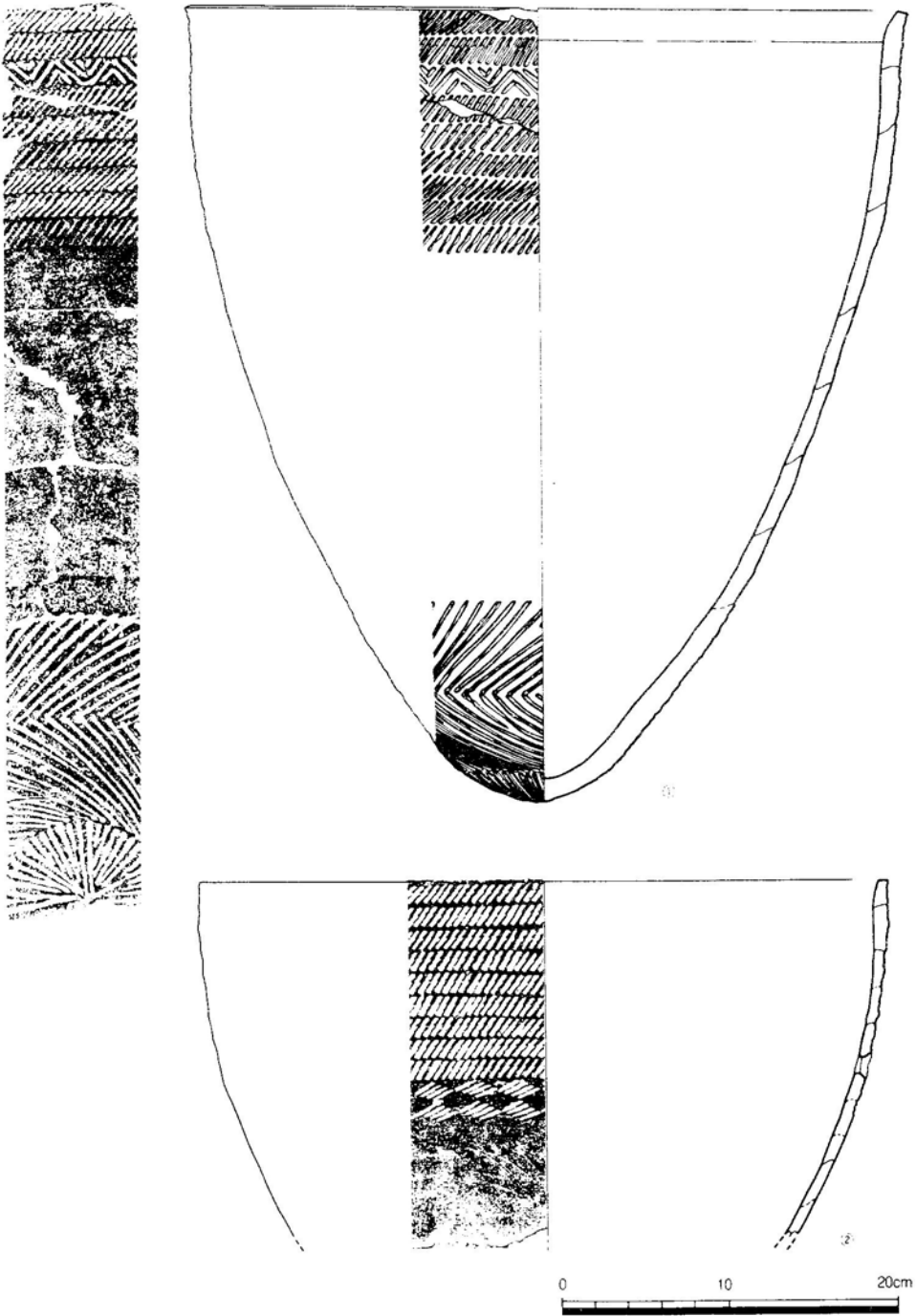
圖面 2. 第1號 甕棺遺構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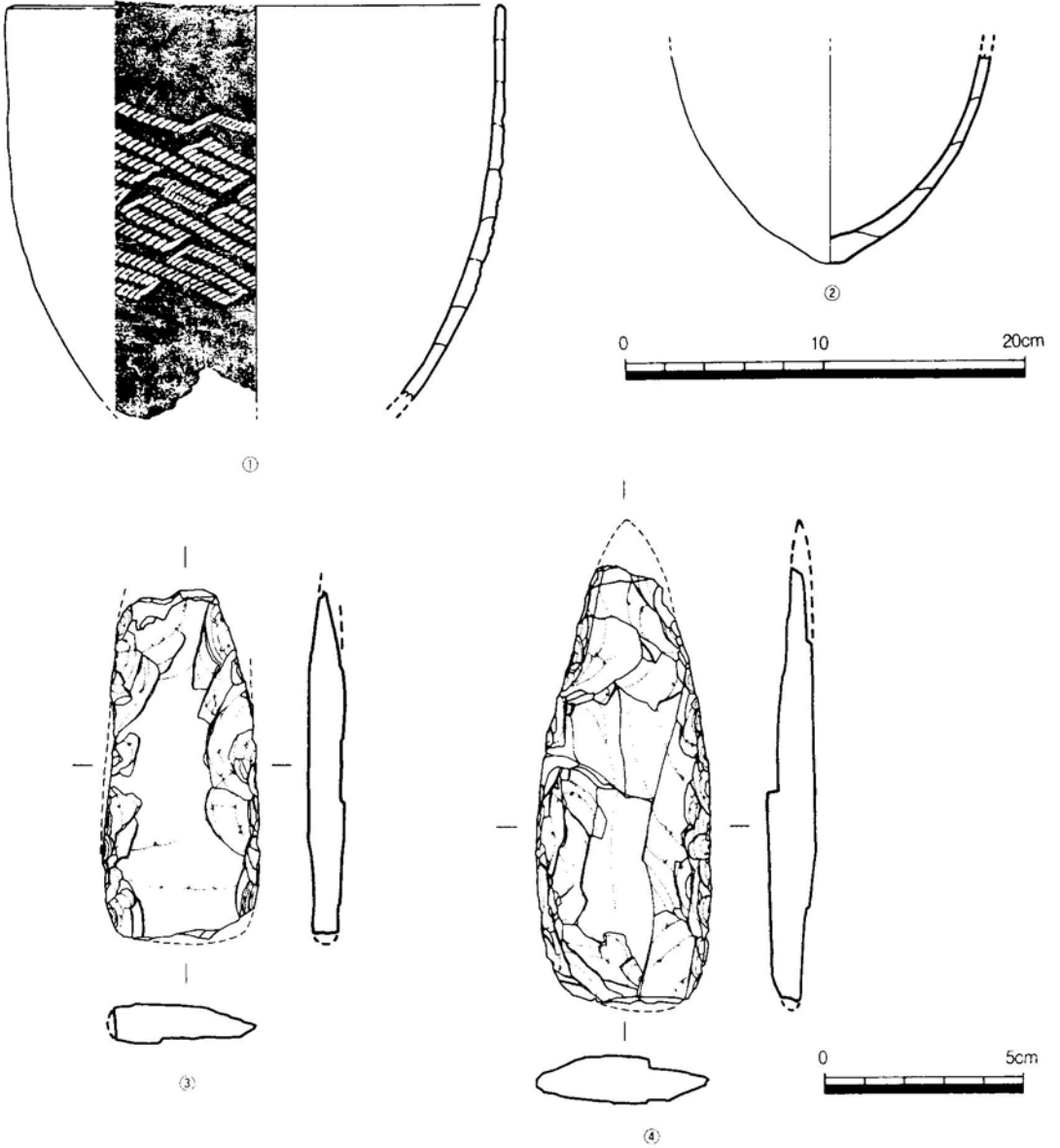
圖面 3. 第2號 甕棺遺構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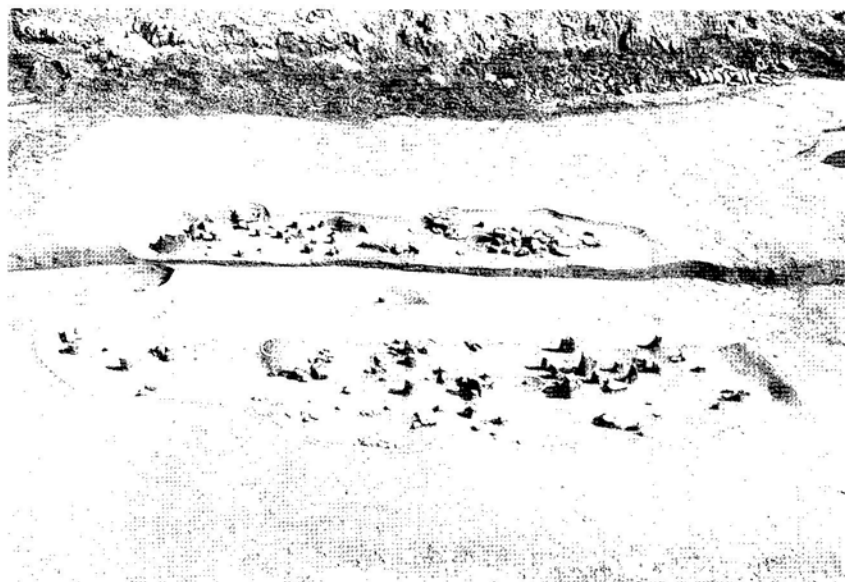
圖面 4. 第1號 甕棺斗 共伴遺物 實測圖



圖面 5. 第2號 甕棺 共伴遺物 實測圖(1)



圖面 6. 第2號 甕棺과 共伴遺物 實測圖(2)



圖版 1. 晉州 上村 第14號 住居址(上)와 第1號 甕棺 出土狀態(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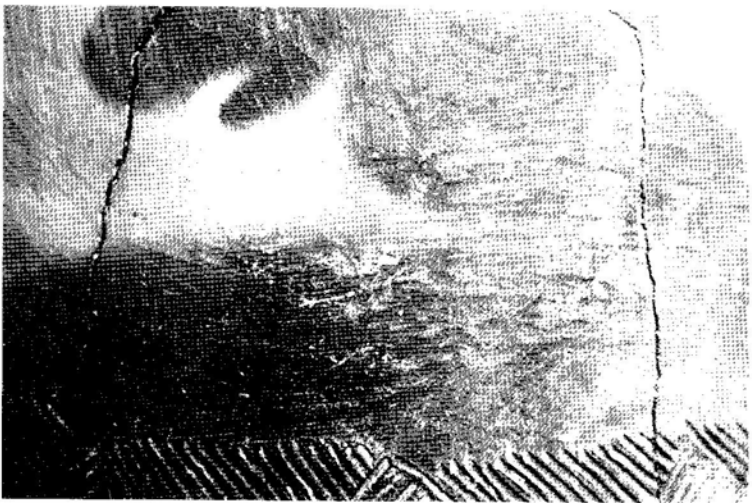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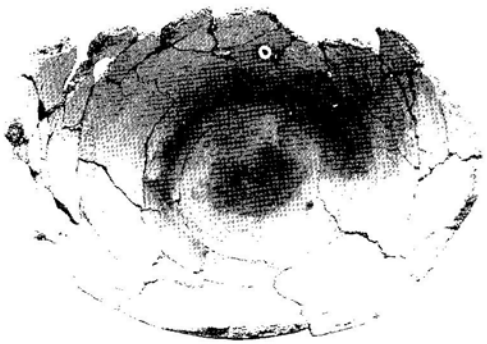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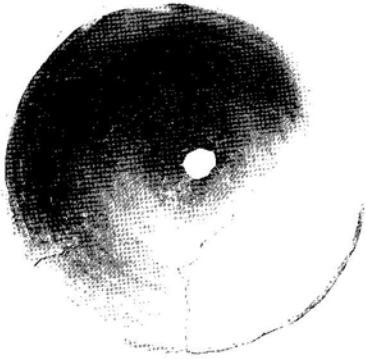
圖版 2. 第2號 甕棺(上)及 共伴遺物 出土狀態(下)



|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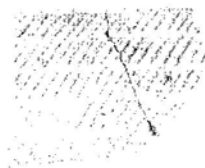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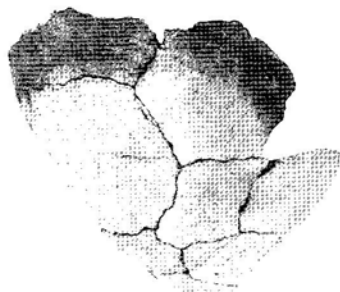
圖版 3. 第1・2號 甕棺斗 第1號 甕棺器面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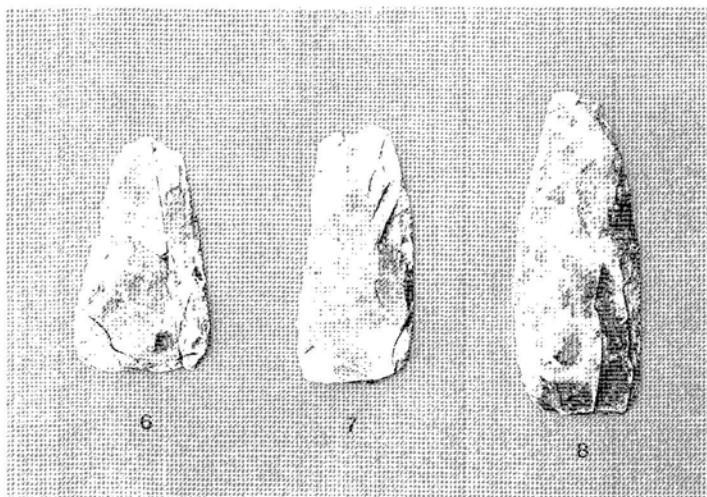
3



4



5



6

7

8

圖版 4. 第1號 甕棺 共伴遺物(1·2·6) 第2號 甕棺 共伴遺物(3·4·5·7·8)